

#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묘사의 이해

임 성 철\*

**주제분류** 헬레니즘, 유토피아 사상

**주요어** 에우헤메로스, 에우헤메로스주의, 에우토피아, 신성한 역사, 판카이아, 공간유토피아, 국가소설

**요약문**

E. 로데 이후 연구자들은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를 ‘유토피아 소설’, ‘여행보고 테두리에서의 유토피아적·철학적 소설’, ‘허구적인 여행가의 이야기’, ‘여행문학의 장르’, ‘여행담’, ‘환상적인 여행 이야기’, ‘유토피아적 여행기’, ‘유토피아적 여행소설’, 그리고 ‘유토피아적 모험 소설’ 등으로 표현한다. 에우헤메로스의 유토피아적 묘사에서 주목할 점은, <신성한 역사>가 이상적인 국가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질서 유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최초의 국가 소설이었다는 것이다. 그의 유토피아 사상은 엄격한 계급 체계에 바탕을 둔 사회적 질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적 삶의 영역과 정치적·문화적 삶의 영역 사이의 뚜렷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 특이성으로 들 수 있다.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는 ‘시간 유토피아’가 아닌 사회적·목가적인 차원에서의 ‘공간 유토피아’이다. 이는 에우헤메로스가 판카이아 섬을 ‘황금시대’로 되돌리려는 차원에서 회상하거나 메시아니즘의 차원에서 고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적 시각에서 인도양에 위치한 섬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말이다. 즉 에우헤메로스가 말하고자 한 유토피아는 에우토피아, 즉 선하고 행복한 모습을 한 구체적인 장소이다.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는 광의적 의미에서 서구 최초의 유토피아적 국가소설이라 할 수 있다.

---

\* 경기대학교

## 1. 들어가는 글

“A map of the world that does not include Utopia  
is not worth even glancing at,  
for it leaves out the one country  
at which Humanity is always landing.  
And when Humanity lands there,  
it looks out, and, seeing a better country, sets sail.  
Progress is the realisation of Utopias.”  
[OSCAR WILDE, The Soul of Man Under Socialism]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 즉 300년에 펠레폰네소스 남서쪽에 위치한 폴리스 메세네(Messene)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에우헤메로스는 지리학자, 역사가, 철학자 그리고 시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무엇보다 그는 무신론적 관점을 견지한 종교철학자로서, 올림피아의 신들은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인간들이 사후(死後)에 신격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대 문헌 전승 자료에서 확인되는<sup>2)</sup> 이러한 그의 입장은 주지하다시피 서구 철학사와 종교사에서 ‘에우헤메로스주의(Euhemerismus)’로 불린다. 또한 “합리주의적 신화 해석의 효과가 큰 이론의 창시자”<sup>3)</sup>로 불

- 
- 1) 에우헤메로스가 말한 내용과 그의 여행 기록은 <신성한 역사>에 언급된 것 이외에는 고대 문헌 가운데 그 어느 곳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 2) 참조. H. Diels, *Doxographi Graeci*, Berlin 1879, pp. 1-263; G. S. Kirk/J. E. Raven/M. Schofield, *The Presocratic Philosophers*, Cambridge <sup>2</sup>1983, pp. 4-6.
  - 3) R. Müller, *Menschenbild und Humanismus der Antike. Studien zur Geschichte der Literatur und Philosophie*, Leipzig 1980 = Frankfurt a. M. 1981, p. 191. 비교. 헤카타이오스(Hekataios)의 이집트에 관한 작품(*Bibl. hist.* 1. 11-29; 1. 13, 1)이 에우헤메로스의 신학적 견해에 영향을 주었다고 E. Schwartz와 F. Jacoby는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에우헤메로스주의의 실제적인 창시자를 헤카타이오스로 본다(E. Schwartz, Hekataios von Teos, in: *Rheinisches Museum* 40, 1885, pp. 223-224; F. Jacoby, Euhemerios, in: *RE* 6, 1907, p. 969; M. Winiarczyk, Euhemerios von Messene. *Leben, Werk und Nachwirkung*, München/Leipzig 2002, p. 69).

리는 에우헤메로스의 이러한 종교 비판적 입장은 무엇보다 그의 유토피아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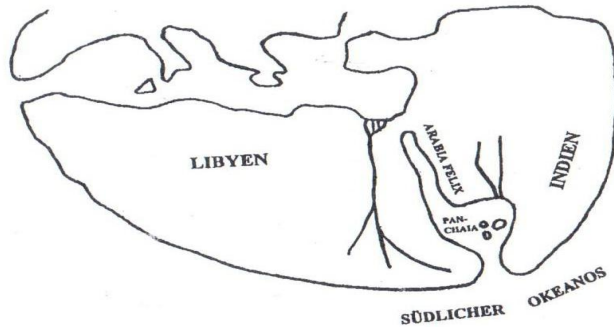
에우헤메로스의 유토피아 사상은 디오도로스(Diodoros)의 문헌(*Bibl. hist.* 5, 41. 4 - 46. 7 = F. Jacoby, FGrHist I, p. 302.; 6. 1, 1-11<sup>5)</sup>)에 요약된 단편적 기록과, 기원전 2세기 초 엔니우스(Quintus Ennius)가 라틴어로 번역한 것<sup>6)</sup> 가운데 일부 단편으로 전승되어 오는 <신성한 역사>(*Hiera Anagraphe*)에 담겨 있으며<sup>7)</sup>, 이는 철학적-유토피아적 여행 소설의 성격을 띤 여행담이라 할 수 있다. 에우헤메로스의 여행담은 이암블로스의 <태양의 섬>과 더불어 헬레니즘 시대의 가장 독특한 유토피아적 면모를 드러내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에우헤메로스는 마케도니아의 왕 카산드로스(Kassandros, 기원전 305-298/297년)<sup>8)</sup>의 지시에 따라 아라비아 펠릭스(Arabia Felix = 오만과 예멘을 포함한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지역)에서 인도양으로 출항하게 되어 ‘판카이아’(Panchaia) 섬에 우연히 도착한다(6. 1, 4)<sup>9)</sup>. 이 섬은 ‘히에라’(Hiera) 그리고 ‘이름 없는 작은 섬’과 함께 군도(群島)의 중심 섬으로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이야기에 나타난 성격과 유사한 특징을 띤다(비교.

- 
- 4)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에우헤메로스의 입장을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H. Dörrie, Euhemeros, in: *Der kleine Pauly. Lexikon der Antike*, hrsg. von K. Ziegler und W. Southeimer, Bd. 2, München 1967, p. 415를 참조할 것.
- 5) 디오도로스의 <歷史 藏書>(Bibliothèque Historique) 6권에 이 부분이 실려 있으나, 소실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Eusebius의 *Praeparatio Evangelica* II 2, 59B-61A에 실려 있다.
- 6) Cicero는 *De natura deorum* 1, 119에서 이 번역을 언급한다.
- 7) Ennius가 <신성한 역사>를 라틴어로 번역한 사실은 Laktanz의 *Divinarum institutionum libri* VII: 1, 11, 33 1에서 확인된다.
- 8) 에우헤메로스의 출생 시기와 카산드로스 왕의 지배 시기와 관련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M. Winiarczyk, Euhemeros von Messene. Leben, Werk und Nachwirkung, München/Leipzig 2002, pp. 1-3을 참조할 것.
- 9) 이 섬의 지형적 위치는 대략 아래 그림과 같다(출처: K. Geus, Utopie und Geographie. Zum Weltbild der Griechen in frühhellenistischer Zeit, in: *Orbis Terrarum. Internationale Zeitschrift für Historische Geographie der Alten Welt* 6, 2000, p. 90):

『티마이오스』 23a, 23e, 27b). 에우헤메로스는 특히 그의 <신성한 역사>에서 판카이아 섬의 경제 체계와 이상적 통치 질서 그리고 우라노스, 크로노스 그리고 제우스가 최초의 왕으로 다스린 이 섬나라의 기본법을 상세히 설명한다<sup>10)</sup>.

에우헤메로스가 소개하고 있는 섬 가운데, 히에라는 군주정으로, 판카이아는 이와는 반대로 귀족정으로, 그리고 이 판카이아에 있는 ‘파나라’(Panara)라는 도시는 민주정으로 다스려진다. 이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신성한 내용이 담긴 황금 비석(Stele)이 있는 트리필리스(Triphylis)<sup>11)</sup>의 제우스 사원이 위치하고, 이 비석에는 앞서 언급한 신들이 인간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들이 통치자로 지배했고, 후일 신들로 추앙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에우헤메로스 연구자인 비니아르치(M. Winiarczyk)



참조. Geus에 따르면, 헬레니즘 시대의 유토피아 사상에는 늦어도 기원전 4세기 이후에 알려진 ‘지구 구형모델’(Erdkugelmodell) 이론이 언급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러한 이론을 소개한 대표자라 할 수 있는 플라톤의 경우에도 의식적으로 이를 말하지 않는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지구 원반모델’(Erdscheibenmodell) 이론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후일 이를 늦게 단념하게 된 이유는 지구원반모델을 고수한 호메로스가 갖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지적 완전성에 자신들의 사고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에서 기인한다고 Geus는 밝힌다(pp. 83-84).

- 10) 참조. 에우헤메로스는 자신의 여행담을 ‘과거시제’로 표현하고 있으나, 디오도로스가 보고하는 에우헤메로스의 여행담은 ‘현재시제’로 서술되어 있다(참조. 5. 43, 3; 44. 1, 2; 45. 4; 46. 3).
- 11) 트리필리스란 세 부족, 즉 판카이아인, 오케아노스인, 도리스인을 말한다.

은 그의 유토피아에 허구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정치적-종교적 신통계보학(Theogonie)’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니아르칙은 그의 <신성한 역사>를 “신통계보학적 시가의 전통적 본보기(das traditionelle Schema der theogonischen Dichtung)”<sup>12)</sup>로 여기며, 디오도로스가 전해주는 보고를 에우헤메로스의 ‘신학적’ 견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홀츠베르크(N. Holzberg)는 에우헤메로스라는 인물 자체를 허구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13)</sup>.

이러한 해석 관점에 덧붙여 에우헤메로스의 유토피아 사상을 분석하는 일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헬레니즘 시대의 유토피아 사상이 폴리스의 쇠퇴와 그 이후 초기 헬레니즘의 시대적 상황 하에서 그 이전 시기와는 다른 유토피아적 열망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 당시의 사람들은 폴리스 문화의 상실이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신적 영역에서의 새로운 사상적 돌파구를 필요로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세분화의 가속화, 소작농의 빈곤화, 노예제의 확산, 자유로운 임금노동자들의 생활수준 저하, 하층 및 중산층 시민계층의 정치적 생활로부터의 밀려남 등<sup>14)</sup>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억압받은 계층의 목소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그러한 열망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에우헤메로스가 판카이아 섬나라에 관해 남긴 기록에 드러난 유토피아 사상의 특이성과 이에 대한 해석 관점을 분석하고, 이에 내포된 헬레니즘 시기의 시대적 열망과 사상사적 맥락 그리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M. Winiarczyk, Euhemeros von Messene. Leben, Werk und Nachwirkung, München/Leipzig 2002, p. 183.

13) N. Holzberg, Novel-like Works of Extended Prose Fiction, II: A. Utopias and Fantastic Travel: Euhemeros, Iambulus, in: The Novel in the Ancient World (Mnemosyne Suppl. 159), hrsg. von G. Schmeling, Leiden 1996, pp. 621-628.

14) R. Müller, Menschenbild und Humanismus der Antike. Studien zur Geschichte der Literatur und Philosophie, Leipzig 1980 = Frankfurt a. M. 1981, p. 190.

II.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묘사 분석  
- 사회 체제와 경제 질서를 중심으로

에우헤메로스는 <신성한 역사>에서 아라비아 펠릭스의 가장 끝에 위치한 섬들 가운데 세 개의 섬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에우헤메로스가 말하는 이 세 개 섬의 지리적-환경적 특징 그리고 이 사회 체제 및 경제 질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1) 히에라 섬 - 이 섬<sup>15)</sup>이 ‘신성한’(hiera)이라는 의미, 즉 ‘히에라’로 불리는 이유는 이곳에서 신들을 경배하기 위해 필수적인 유향(libanotos)과 몰약(smyrna)이 풍부하게 생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에서는 죽은 사람의 매장이 금지된다. 이 섬의 주민들은 유향과 몰약을 육지의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판매한다. 이것들은 다시 페니키아,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로 운송되며, 이 섬에서 다른 지역으로 수출된다(5. 42, 2). 이 섬에는 판카이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는 이곳을 다스리는 왕이 산다. 이곳에서 수확되는 모든 생산물의 십분의 일은 왕에게 귀속된다(5. 42, 1).
- (2) 이름 없는 섬 - 이 섬에는 죽은 사람의 사체가 옮겨져 매장된다(6. 1, 4-5; 5. 41, 4). 사람들은 이러한 매장을 가치 있는 일로 인정한다.
- (3) 판카이아 섬<sup>16)</sup>

15) 이 섬의 폭은 200 스타디온(약 40km)에 달한다(5. 42. 2).

16) 에우헤메로스의 유토피아 사상 연구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판카이아 섬과 히에라 섬이 동일한 섬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브라우네르트(H. Braunert, Die heilige Insel des Euhemeros nach der Diodor-Überlieferung, in: Rheinisches Museum 108, 1965, pp. 255-268)는 판카이아 섬이 nēos hiera theōn(신들의 신성한 섬, 6. 1, 5)으로 불렸다는 점을 근거로 ‘히에라’가 판카이아 섬의 별칭이었으며,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매장되는 섬과 유사하게 유향과 몰약이 풍부한 섬도

- (3-1) 주요 거주민과 중심 도시 - 이 섬의 토착 원주민은 ‘판카이아인’으로 불린다. 이곳에는 인도, 크레타, 스키타이, 오케아니테스(Oceanites)에서 온 외지인들도 역시 거주하고 있다(5. 42, 4). 이 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파나라’이며, 중요한 지역은 휘라키아(Hyrakia), 달리스(Dalis), 그리고 오케아니스(Okeanis)이다(5. 45, 2).
- (3-2) 지리적 위치 - 에우헤메로스는 판카이아 섬의 위치를 인도양의 어느 한 곳으로 소개한다<sup>17)</sup>. 판카이아 섬은 히에라 섬에서 동쪽으로 30 스티디온(약 5km) 떨어져 위치한다. 에우헤메로스에게 따르면, 사람들은 판카이아 섬의 동쪽에 있는 산맥의 구릉에서 인도, 즉 히말라야 산맥을 멀리서나마 바라볼 수 있다(theoreisthai ten Indiken aerion, 5. 42, 3).
- (3-3) 자연 환경 - 이 섬의 자연적 여건은 풍성하고 다양하다. 특히 이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흑백나무, 플라타너스, 월계수, 호두나무, 대추야자나무)과 포도나무가 자란다. 초원은 꽃들이 양탄자처럼 깔려 있다(5. 43, 1-3). 그리고 많은 새들이 다양한 색채의 깃털로 장식하고 있으며, 코끼리, 사자, 펜더, 영양이 살고 있다. 특히 여기에 사는 동물들은 외관이 다르고 사납고 잔인하다(5. 45, 1). 섬의 자연 환경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로쿠스 아모에

---

이름이 없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p. 262ff.). 더욱이 브라우네르트는 파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왕이 없이 살았고, 판카이아인들의 남은 무리가 왕에게 예속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한다(pp. 257f.). 그러므로 브라우네르트에 따르면, 디오도로스는 판카이아 섬이 아닌 히에라 섬의 왕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에우헤메로스의 작품을 부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브라우네르트의 해석 입장에 대한 반박 입장은 M. Winiarczyk, *Gesellschafts- und Wirtschaftsordnung in der Hiera Anagraphe des Euhemeros von Messene*, in: *Wiener Studien* 115, 2002, pp. 137-139를 참조할 것.

17) 참조. 에우헤메로스가 발견한 판카이아 섬은 그 당시의 지리학자와 역사학자들에게 ‘문학적 허구’로 여겨졌다[Eratisth. I B 6(Berger) ap. Strab. 1, 31, 1; I B 7 ap. Strab. 2, 4, 2 = Polyb. *Hist.* 34, 5; Apollodor, (FGrHist 244 F 157B) ap. Strab. 7, 3, 6; Strab. 2, 3, 5; Plut. *De Is. et Os.* 23, p. 359E-360B].

누스(*locus amoenus*)<sup>18)</sup>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판카이아 섬의 자연 환경은 환상적인 의미에서 이암블로스의 <태양의 섬>에 나타난 환경적 특징보다 다채롭고 다양하지는 못하나, <태양의 섬>과 마찬가지로 목가적 풍경을 띠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3-4) 사회 체제 및 경제 질서

(3-4-1) 계층 구분 - 판카이아 섬의 주민은 세 개의 신분<sup>19)</sup>, 즉 (a) 사제(司祭)들(*hierieis*)과 수공업자들(*technitai*), (b) 농부들(*georgoi*), 그리고 (c) 군인들(*stratiotai*)과 목동들(*nomeis*)로 나뉜다(5. 45, 3)<sup>20)</sup>.

(3-4-1-1) 사제의 역할과 특징 - 사제들은 최종적 권위를 갖는 지도자로서 모든 법률 분쟁의 사례에 관여해 사법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모든 공적인 사항들을 판결한다, 또한 사제들은 모든 생산물

18) 참조. 임성철, 이암블로스의 <태양의 섬>에 나타난 유토피아 사상의 철학적 진실성과 그 현대적 의미, 철학연구 43집, 2011, 127쪽, 각주 25번: “이 용어는 1948년에 Ernst Robert Curtius가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으로 수사학적 표현 기법을 뜻한다[*Europäische Literatur und lateinisches Mittelalter*, Bern 1948, pp. 191-209(*Die Ideallandschaft*)]. Curtius는 고대 문학에 나타난 이상적인 장소를 학문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locus amoenus*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Curtius는 호메로스로부터 로마시대에 이르는 동안 산문과 시가(詩歌) 문학에 걸쳐 묘사된 모티브의 기본 목록을 제공하는 문학적 규칙이 이미 주어져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연구 관점을 내세운다. Curtius이후, 수많은 학자들이 고대 문학 작품 가운데 *locus amoenus*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담겨 있으며, 이를 규정하려는 연구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한 요소들로는 온화한 기후(예를 들어, 산들거리는 봄철의 미풍), 무성한 숲, 꽃이 만발한 초원과 풍성한 과실,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 특히 지저귀는 새들, 샘과 시냇물 등이 포함된다. (……).”

19) 참조. J. Kaerst, *Geschichte des Hellenismus*, II, Leipzig-Berlin <sup>2</sup>1926, p. 154: 카에르스트는 판카이아 섬의 세 가지 신분 계층 혹은 계급 구분을 ‘직업 상속’(Berufsvererbung)의 원리에 따른 것, 즉 해당 직업에 따른 작업의 질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20) 이를 이암블로스의 <태양의 섬>에 묘사된 것과 비교해 볼 것[임성철, 이암블로스의 <태양의 섬>에 나타난 유토피아 사상의 철학적 진실성과 그 현대적 의미, 철학연구 43집, 2011, 129쪽]: “‘태양의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무리지어 살아가며, 그 구성원들은 서로 친척관계이다. 각 공동체(*systemata*)의 거주 인원은 400명을 넘지 않으며(57, 1), 각 공동체의 수장은 그 곳에 사는 ‘최고 연장자’가 맡고 왕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58, 6). (...) 이 섬에는 결혼과 가족 제도가 없으며, 이로 인해 남자들은 여성들을 공동으로 소유한다(58, 1).”

과 가축의 분배를 관리하며, 이를 모든 계층에게 분배한다. 사제들만이 유일하게 두 배의 몫을 할당받는다. 그들은 화려한 복장과 금장신구를 착용한다. 그리고 그들은 신들을 경배하고 그들의 권능과 인간에게 행한 자선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책임을 떠맡는다(5. 46, 2). 그들은 사원 근처에서 살며(5. 44, 2), 반경 200 스타디온(약 40km)이 되는 테메노스(Temenos)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5. 44, 5). 만일 그들이 이곳을 벗어나게 되면, 그들은 판카이아 주민들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할 수 있다(5. 46, 4).

- (3-4-1-2) 농부는 땅을 경작하고 그 수확물을 공동체에(eis to koinon, eis to demosion) 바친다(5. 45, 4). 농부들(과 목동들) 가운데 최고의 성과를 이룬 사람에게는 곡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특별 할당량이 부여된다. 1등과 2등 그리고 그 나머지 10등까지의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 그 일은 사제가 맡는다(5. 45, 4-5). 이러한 결정은 나머지 농부들(과 목동들)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 (3-4-1-3) (a) 군인들은 그들에게 배당된 급료, 즉 화폐가 아닌 ‘현물’을 지급받고, 그 대가로 요새와 진지를 방어하며 영토를 지킨다. 그들은 요새와 경계초소에 배치된다. 그 이유는 숨어서 농부를 기습하는 무법자들로 이루어진 도적떼에 의해서 영토의 일부가 공격받기 때문이다(5. 46. 1). (b) 농부와 마찬가지로 목동도 역시 제물로 바치는 짐승과 다른 가축, 즉 노동의 산물을 개수와 무게에 따라 아주 정확하게 공동체에 바쳐야 한다.
- (3-4-2) 사유 재산 소유 문제 - 판카이아의 주민은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 오로지 농부들과 목동들에게만 ‘집’과 ‘정원’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5. 45, 5).
- (3-4-3) 파나라(Panara) 도시 - 판카이아 섬에는 ‘파나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주민들은 아주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그들은 “트리필리스의 제우스의 피보호자들”(hiketai tou Dios tou Triphyliou)이라고 불리며(5. 42, 5), 판카이아 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들만이 그들 자신의 법에 따라 “왕 없이 자치적으로”(autonomoi kai abasileutoi, 5. 42, 5) 살아간다. 특이한 것은 왕이 없는 대신에 이곳에서는 매년 3명의 집행관이 선출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형처벌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을 제외하고, 모든 위법 사항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아주 난해한 사안(ta megista)에 대한 결정은 사제들에게 위임된다(5. 42, 5).

- (3-4-4) 트리필리스의 제우스의 사원(Templum Triphylii Iovis) - (a) 이 사원은 파나라 도시로부터 60 스타디온(약 12km)이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5. 42, 6). 사람들은 이 사원의 높은 제단과 그 화려한 외관 그리고 유리한 위치 선정에 감탄한다. (b) 수많은 나무들에 둘러싸인 사원의 한 곳 샘에서 물이 흘러나와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을 만들고, 사방의 토지를 비옥하게 만든다. 사원의 주변에는 깊은 숲이 우거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여름에 휴식을 취하고 새들이 둥지를 튼다. 또한 초원과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나 초현세적인(überirdisch) 광경이 연출된다. 이와 더불어 야자수가 즐비하고 그 열매가 풍성하고, 많은 유실수가 있어 식량이 넘쳐난다. 그 외에도 포도나무가 다양한 모양으로 높은 위치에 자라고 있어 그 모습이 눈부시고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 (c) 제우스의 사원은 흰 돌로 지어져 눈에 띄는 건축물이다. 이 사원의 길이와 폭은 같으며, 각각 2 플레트론(Plethron, 약 60m)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원은 높고 넓은 기둥으로 받쳐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기교가 넘치는 부조들로 장식되어 있다. 그리고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웅장한 신상들(Götterbilder)이 그곳에 서있다. (d) 사원에서 시작되는 화려한 길(길이 800m, 폭 30m)이 조성되어 있고, 이 길의 양쪽 가로수 길에는 사각형의

주각(Postament) 위에 거대한 동으로 된 용기가 있다. 이 길 끝에는 앞서 언급한 샘에서 물이 솟아올라 나온다. 건강에 효험이 있는 이 물은 ‘태양의 물’(Heliou Hydor)이라고 불린다(5. 44, 4). (e) 이 사원 영역 너머에 ‘우라노스의 옥좌’ 혹은 ‘세 부족의 올림포스’라고 불리는 작은 산이 있다. 에우헤메로스는 신화에 근거해, 오래 전에 우라노스가 왕으로 지상을 다스릴 때 이곳에 거주하기를 원했다고 전한다. (f) 무엇보다 이 사원에 금으로 된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에는 (이집트의 상형문자와 유사한 글자인) ‘판카이아어(語)’(5. 46, 3; 6. 1. 7) 신이 아닌 인간으로 왕 노릇을 한 우라노스, 크로노스 그리고 제우스의 공적이 기록되어 있다(5. 46, 7; 6. 1, 7-11).

(3-4-5) 판카이아의 경제 질서 - 판카이아 섬나라의 경제는 소박하고 원시적인 차원에서 농업과 동물 사육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비록 이 섬에는 금, 은, 동, 철, 주석의 매장량이 풍부한 광산이 있지만, 이러한 광물이 섬 밖으로 유출시키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5. 46, 4). 즉 이는 무역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sup>21)</sup>. 화폐제도도 없으며, (외국에로의 여행도 금지된) 그 자체로 자족적이며 외부 세계와 단절된 사회, 즉 이른바 ‘닫힌 사회’의 전형으로 볼 수도 있다<sup>22)</sup>.

(3-4-6) 노예문제 - 판카이아 섬나라에 노예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보크트(J. Vogt)는 에우헤메로스가 남긴 단편에서 유토피아 국가에서의 노예제 문제는 그 ‘절박성’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21) 비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유토피아 사상에서도 ‘무역’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자료를 참조할 것: R. Bichler, Zur historischen Beurteilung der griechischen Staatsutopie, in: Grazer Beiträge 11, 1984, p. 193; J. Hasebroeck, Staat und Handel im alten Griechenland. Untersuchung zur antiken Wirtschaftsgeschichte, Tübingen 1928, pp. 188-195.

22) M. Winiarczyk, Gesellschafts- und Wirtschaftsordnung in der *Hiera Anagraphe* des Euhemeros von Messene, in: Wiener Studien 115, 2002, pp. 131-132.

다<sup>23)</sup>. 비니아르칙의 해석 관점에 따르면<sup>24)</sup>, <신성한 역사>는 이상적 사회질서가 아니며, 여기에 묘사된 섬에 대한 설명은 단지 종교의 기원을 서술하기 위한 ‘삽화식 이야기’(Rahmenerzählung) 일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에우헤메로스는 금속 광산에서 일하는 노예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디오도로스도 역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니아르칙은 설명한다. 덧붙여 비니아르칙은 에우헤메로스도 플라톤처럼 노예 문제를 침묵으로 일관하고 이를 기록하는 일을 생략했을 것이라고 본다.

\*

이상의 고찰에서 확인되는 판카이아 섬나라의 사회에 대한 묘사는 동화적·환상적이거나 이상적이기 보다는 ‘현실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암블로스의 <태양의 섬>의 거주민들이 가진 특이하고 신기한 육체적 특성(2. 56, 2-5)과 비상한 능력, 예를 들어 두 개로 갈라진 혀로 두 사람과 동시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2. 56, 6)을 감안할 때, 판카이아 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하다. 또한 판카이아 섬나라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며, 도둑들에 의한 습격의 위험을 늘 안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공동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족생활의 경우도 단지 농부들과 목동들에게만 가능하다. 그리고 농민들과 목동들에게는 일의 성과에 따른 특별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평등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판카이아 섬나라의 사회 체제 및 경제 질서를 에우헤메로스 이전 시기, 즉 기원전 5세기와 플라톤의 이상 국가와 비교할

---

23) J. Vogt, Die Sklaverei im utopischen Denken der Griechen, in: Rivista Storica dell'Antichità 1, 1971, p. 30.

24) M. Winiarczyk, Gesellschafts- und Wirtschaftsordnung in der *Hiera Anagraphe* des Euhemeros von Messene, in: Wiener Studien 115, 2002, pp. 134-135.

때 드러나는 큰 차이점은 두 가지이다. 그 중 한 가지는 (a) 사제들과 수공업자들(기술자들, 예술가들)이 동일한 계층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사제 신분에 부여된 최고 행정권한, 재판권, 노동기획 및 생산물의 분배 권한은 엘리트주의적 성격을 띠고 할 수 있으며, 특이하게도 사회의 최상 계층(계급)에 수공업자들, 기술자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편입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이전의 유토피아 사상에서 팔레아스(Phaleas)의 경우 수공업자들에게는 시민권이 박탈되어 있으며(Aristoteles, Pol. 2, 1267b 15), 플라톤의 경우 이들은 정치적 권력 행사로부터 배제된다. 이전 시대와는 다른 시각, 즉 두 신분이 동일한 계층으로 속한다는 점을 줌של링에(M. Zumschlinge)는 디오도로스가 에우헤메로스의 기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한 실수로 설명하고<sup>25)</sup>, 뮐러(R. J. Müller)는 이를 판카이아인들의 특별한 종교적 경건함(6. 1, 4)으로 이해하고, 사제들처럼 수공업자들도 신들의 조형물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신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들과 동일한 신분에 속할 수 있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비니아르칙은 수공업자들은 섬의 일반 거주민들을 위한 물건들도 제작했음을 강조하면서 뮐러의 해석에 반론을 제기한다<sup>26)</sup>. 다른 한 가지는 (b) 판카이아 섬나라에는 (농민들과 목동들에게 속한 집과 정원을 제외하고) 사유재산이 완전히 폐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제들은 공동체에 헌납된 생산물과 가축을 가지고 판카이아 섬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공정하게 분배한다(5. 45, 5: to epiballon hekasto aponemousi). 이러한 차원에서 판카이아 섬의 경제 질서는 ‘사회주의적’이자 ‘공산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27)</sup>.

25) M. Zumschlinge, Euhemeros: staatstheoretische und staatsutopische Motive, Diss., Bonn 1976, p. 80.

26) M. Winiarczyk, Gesellschafts- und Wirtschaftsordnung in der *Hiera Anagraphe* des Euhemeros von Messene, in: Wiener Studien 115, 2002, p. 130.

27) M. Winiarczyk, Gesellschafts- und Wirtschaftsordnung in der *Hiera Anagraphe* des Euhemeros von Messene, in: Wiener Studien 115, 2002, p. 130, 각주 17번에서 재인용함: F. Susemihl, Geschichte der griechischen Literatur in der Alexanderzeit, I, Leipzig 1891, p. 318(“leise comunistisch angehaute Verfassung”); R. von Pöhlmann, Geschichte der sozialen Frage und des Sozialismus in der alten

이는 기원전 5세기의 유토피아 사상과도 확연하게 구분되는 차이점이다.  
 전체적인 면에서 히에라 섬과 판카이아 섬의 사회 체계와 경제 질서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그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 히에라 섬                       | 판카이아 섬   | 문헌근거                   |
|-----------|-----------------------------|--|------------------------|
| 지배 계층     | 왕                           | 사제들  | 5. 42, 1<br>5. 45, 4   |
| 보수        | 사제의 경우<br>1/10              | 모든 수확물은<br>공동체의 소유,<br>그것을 사제에게<br>바치고 이후에<br>사제에 의해<br>재분배됨 | 5. 42, 1<br>5. 45, 4-5 |
| 토지 소유     | 개인 소유                       | 공동 소유(단, 농부와<br>목동은<br>집과 정원 소유 가능)                          | 5. 45, 5               |
| 자연광물/생산활동 | 유황, 몰약                      | 농지 경작, 가축 사육   | 5. 41, 4<br>5. 45, 4-5 |
| 무역 거래     | 아라비아 상인에게<br>유황과 몰약을<br>판매함 | 섬 외부 출입 금지,<br>화폐 제도에 대해<br>무지                               | 5. 42, 2               |
| 크기        | 폭 200 스타디온<br>(= 약 40km)    | 테메노스의 길이만<br>200 스타디온  | 5. 42, 1<br>5. 44, 5   |

Welt, II, München 31925, p. 297 (“kommunistisch-sozialistische Wirtschaftsordnung”);  
 R. Helm, Der antike Roman, Göttingen 21956, p. 25(“ein gemilderter Kommunismus”);  
 H. Strasburger, Zum antiken Gesellschaftsideal, Heidelberg 1976, p. 99(“der kommunistische Idealstaat”).

### III. 에우헤메로스의 유토피아적 묘사에 대한 해석 관점들

앞서 II장에서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에 대해 살펴본 다각적인 해석 관점들을 고찰하기 전에, 판카이아 섬의 사회 체제와 경제 질서의 문헌학적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자. 연구자들에 따르면<sup>28)</sup> 에우헤메로스의 유토피아 사상은 ‘이집트’ 혹은 ‘인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즉 에우헤메로스는 압테라 (혹은 테오스) 출신의 헤카타이오스, 헤로도토스, 이소크라테스(Isokrates), 플라톤을 통해 이집트 사회의 특징과,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을 통해, 특히 메가스테네스(Megasthenes)의 <인디카>(Indika)를 통해 인도 사회의 특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밀레토스 출신의 팔레아스가 주장한 세 계층으로 구분한 사회 구조와, 그 이후 플라톤과 이소크라테스의 이상적 사회 구상을 에우헤메로스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전 시기의 문헌 근거와 에우헤메로스의 작품 분석을 통해 그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을 전적으로 이전 시기의 사상적 영향에 의해 저술된 것 혹은 이외는 무관하게 독창적인 창작이라고 한 가지 측면에서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즉 그의 유토피아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그 이전 시기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다른 일부분은 그 자신의 독창적인 창작(예를 들어 사제와 수공업자의 공동 신분과 사유재산 폐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자는 비니아르치의 연구 결과를 참고해<sup>29)</sup>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에 대한 해석 관점을 고찰하도록 한다. 먼저 종교적-신화적 관점에서 보면, 에우헤메로스의 작품은 (1) 그가 자신

28) 이집트의 영향: B. M. Rostowzew, Studien zur Geschichte des römischen Kolonates, Leipzig-Berlin 1910, pp. 282-283; 인도의 영향: E. Rohde, Der griechische Roman und seine Vorläufer, Leipzig <sup>3</sup>1914, p. 240.

29) 참조: M. Winiarczyk, Euhemeros von Messene: Leben, Werk und Nachwirkung, München/Leipzig 2002, pp. 107-118.

의 무신론적 입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올림포스 신들에 대한 종전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 견해가 있다. 네슬레(W. Nestle)는 에우헤메로스의 관점을 “살짝 베일로 가려진 무신론”(ein leicht verschleierter Atheismus)이라고 설명하고<sup>30)</sup>, 지공(O. Gigon)은 “고전적 신들 세계의 파괴”(Destruktion der klassischen Götterwelt)로 설명한다<sup>31)</sup>. 하지만 에우헤메로스는 <신성한 역사>에서 신들을 태양, 달 혹은 별과 같은 영원한 그리고 불사의 신들과 신으로 숭배된 이승의 신들로 각각 구분한다(6. 1, 1).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성한 역사>에서 후자만을 다룬다. 이 점을 주목할 때,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를 올림포스 신들에 대한 신앙을 훼손하기 위한 의도에서 저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는 신들에 대한 신앙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는 입장이 있다<sup>32)</sup>. 즉 <신성한 역사>는 판카이아의 지배자들의 행적과 그들의 신격화에 그 서술 내용이 집중되어 있으며, 섬에 대한 설명은 단지 삽화식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sup>33)</sup>. 이러한 관점과 연관해 비니아르츱<sup>34)</sup>은 에우헤메로스가 종교의 기원을 설명하고자 했으며 그래서 이를 헬레니즘 시대 초기에 ‘지배자 제의’(Herrscherkult)에 관한 논의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에우헤메로스가 지배자 제의만을 밝히고자 했거나, 그것을 정당화해 그리스인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비니아르츱은 언급한다. (3) 바움가르텐(A. I. Baumgarten)은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를 그리스 신화에 대한 재해석으로 설명한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진실한 신들만이 영원한 천상의 신성(Gottheit)이며, 불경스러운 신화 내용은 신격화된 인간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한 이유로 에우헤메로스가

30) W. Nestle, Vom Mythos zum Logos, Stuttgart <sup>2</sup>1942, p. 546.

31) O. Gigon, Die antike Kultur und das Christentum, Güterloh <sup>2</sup>1971, p. 84.

32) F. Jacoby, Euhemeros, in: RE, 6, 1907, pp. 967-968.

33) R. Baumgarten, Heiliges Wort und Heilige Schrift bei den Griechen, Tübingen 1998, pp. 191-192.

34) M. Winiarczyk, Euhemeros von Messene: Leben, Werk und Nachwirkung, München/Leipzig 2002, p. 118.

천상의 신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동시에 비도덕적인 신화의 내용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려했다는 관점이다. 하지만 이 관점은 바움가르텐이 에우헤메로스 작품의 문학적 성격을 무시하고 있으며, 나중에 에우헤메로스 자신과 이후의 에우헤메로스주의자들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sup>35)</sup>.

그 다음으로는 정치적-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4) 에우헤메로스의 작품에는 지배자 제의에 대한 풍자가 깃들여 있다는 해석 관점이 있다. 히르젤(R. Hirzel)과 살린(E. Salin)에 따르면<sup>36)</sup> 에우헤메로스는 카산드로스 왕의 마케도니아 궁전에 머물며,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의 사람들을 지지하는 지배자 제의에 맞서 이들을 조롱하는 풍자적인 작품을 저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에우헤메로스의 작품이 280년경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하는 야코비(F. Jacoby)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기에 알렉산드로스대왕의 후계자들(Diadochen)은 그들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다<sup>37)</sup>. (5) 앞선 관점과 관련해 에우헤메로스는 지배자 제의를 정당화하려 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인들은 헬레니즘 시대에 그들의 왕들에게 신적인 영광을 부여하고자 했다는 시각이다. (6) 더욱 심층적인 시각에서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는 타른(W. W. Tarn)에 따르면<sup>38)</sup>,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공포한, 모든 인간의 형제애와 평등사상을 선전하기 위한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 (7) 전체적인 면에서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에 소개된 사회 신분 체제와 세부적 특징 그리고 경제 질서는 그가 자신의 작품에서 이상적 국가 질서를 구상하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지배적인 해석 관점이다. 심지어 에우헤메로스가 이러한 정치적 이상을 현실화

35) K. Thraede, Euhemerismus, in: RAC 6, 1966, pp. 881-882.

36) R. Hirzel, Der Dialog. Ein literarhistorischer Versuch, I, Leipzig 1895(ND Hildesheim 1963), pp. 394-396; E. Salin, Platon und die griechische Utopie, München/Leipzig 1921, p. 279(각주 5).

37) F. Jacoby, Euhemerios, in: RE, 6, 1907, p. 967.

38) W. W. Tarn, Alexander the Great and the Unity of Mankind, London 1933, pp. 24-25.

하고자 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브라우네르트(H. Braunert)는 폴리스와 군주 정체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 각각의 사회에 그 사회의 법을 보증하기 위해서, 군주정, 귀족정 그리고 민주정의 요소들이 담긴 정치 질서가 판카이아 섬나라의 묘사에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39)</sup>.

## V. 나가는 글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에 관한 앞선 III장의 (1)-(7)에서 언급한 다양한 해석 관점은 각각의 논지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반박 가능성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에 드러난 유토피아적 사회소설(Gesellschaftsroman)의 기저에는 당시 헬레니즘 초기 사회에 대두된 이질적인 문화적 요소들을 통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으며<sup>40)</sup>, 이는 특히 대중들의 의식 속에 내재한 신화적-종교적 특징들을 더 나은 세계를 염원하는 대중들의 사회적 이상향과 결합한 형태로 드러나며, 에우헤메로스는 그의 작품에서 이를 나타내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에 드러난 유토피아적 요소, 즉 사유 재산 없음과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이차적인 것으로 보고, 판카이아 섬에 대한 묘사 내용을 단지 종교적 기원을 설명하는 삽화식 이야기로 고찰하는 비니아르칙의 해석보다는 <신성한 역사>를 헬레니즘 시대의 시대상이 반영된 철학적 혹은 적어도 교훈적인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는 ‘계시문학’(Offenbarungs-

39) H. Braunert, *Staatstheorie und Staatsrecht im Hellenismus*, in: *Saeculum* 19, 1968, pp. 54-66[M. Winiarczyk, *Gesellschafts- und Wirtschaftsordnung in der Hiera Anagraphe des Euhemeros von Messene*, in: *Wiener Studien* 115, 2002, p. 138에서 재인용].

40)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에 대해서는 K. Geus, *Utopie und Geographie. Zum Weltbild der Griechen in frühhellenistischer Zeit*, in: *Orbis Terrarum. Internationale Zeitschrift für Historische Geographie der Alten Welt* 6, 2000, pp. 80-81을 참조할 것.

literatur)<sup>41)</sup>으로서의 헬레니즘 시대의 유토피아 사상을 이해하는 시각이며, 비록 여행 형식의 줄거리가 그 이전의 ‘주항기(周航記) 문학’(Periplus-Literatur)의 계승이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줄거리에는 플라톤 이후 줄기차게 진행되어온 이상적 국가 시스템의 확증을 위한 정당성 확보의 이념적 시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sup>42)</sup>.

로데(E. Rohde)가 에우헤메로스의 작품 <신성한 역사>를 ‘유토피아 소설’(utopischer Roman)이라고 부른 이후<sup>43)</sup>, 에우헤메로스 연구자들은 그의 작품을 ‘여행보고 테두리에서의 유토피아적-철학적 소설’, ‘허구적인 여행가의 이야기’, ‘여행문학의 장르’, ‘여행담’, ‘환상적인 여행 이야기’, ‘유토피아적 여행기’, ‘유토피아적 여행소설’, 그리고 ‘유토피아적 모험 소설’ 등으로 소개한다. 이러한 다양한 명칭 부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은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가 ‘시간 유토피아’(Zeitutopie)가 아닌 사회적-목가적인 차원에서의 ‘공간 유토피아’(Raumutopie)라는 점이다<sup>44)</sup>. 이는 에우헤메로스가 판카이아 섬을 ‘황금시대’로 되돌리려는 차원에서 회상하거나 메시아니즘(Messianismus)의 차원

41) 참조. K. Geus, Utopie und Geographie. Zum Weltbild der Griechen in frühhellenistischer Zeit, in: Orbis Terrarum. Internationale Zeitschrift für Historische Geographie der Alten Welt 6, 2000, p. 82.

42) 참조. D. Clay/A. Purvis, Four Island Utopias, Newburyport 1999, p. 45: “Euhemeros forces us to see the successive transformations of Plato’s utopian project in the retrospective light of the early third century.”

43) E. Rohde, Der griechische Roman und seine Vorläufer, Leipzig <sup>3</sup>1914, p. 237. 참조. C. Colpe, Utopie und Atheismus in der Euhemeros-Tradition, in: Manfred Wacht (Hrsg.): Panchaia. Festschrift für Klaus Thraede, Aschendorff, Münster 1995 (= Jahrbuch für Antike und Christentum, Ergänzungsband 22), p. 39: “Vielleicht wurde ihm(sc. Euhemeros) die postume Genungtuung zuteil, daß seine Schrift als Leifaden für die Errichtung des Kommagene-Staatswesens und die Begründung des dortigen Königskultes genommen wurde - eine weltgeschichtlich seltenes Beispiel für die bewußte Konzeption einer Utopie und den bewußten Versuch, sie zu verwirklichen.”

44) 참조. K. Geus, Utopie und Geographie. Zum Weltbild der Griechen in frühhellenistischer Zeit, in: Orbis Terrarum. Internationale Zeitschrift für Historische Geographie der Alten Welt 6, 2000, p. 55.

에서 바라본 것이 아닌, 이를 오히려 현재적 시각에서 인도양에 위치한 섬으로 조망하고 있다는 말이다<sup>45)</sup>. 따라서 에우헤메로스가 말하고자 한 유토피아는 자유로운 공간이라기보다는 에우토피아(eutopia), 즉 선하고 행복한 모습을 한 구체적인 장소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근대적 관점과 달리, 고대 그리스의 유토피아 사상가들은 유토피아적인 것의 실현을 미래라는 시간적 차원에 두지 않고, ‘공간적’ 차원에서 사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에우헤메로스의 유토피아적 묘사에서 중요한 점은 그의 유토피아 사상이 이상적인 국가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질서 유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최초의 국가 소설”(Staatsroman)<sup>46)</sup>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에우헤메로스의 유토피아 사상에는 엄격한 계급 체계에 바탕을 둔 사회적 질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 플라톤의 이상 국가(ariste politeia)와는 다른 유토피아적 사회 모델이 등장하며, 무엇보다 생산계급과 지배계급 간의 엄격한 신분 구분, 달리 표현한다면 경제적 삶의 영역과 정치적-문화적 삶의 영역 사이의 뚜렷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 특이성으로 들 수 있다<sup>47)</sup>.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는 단편적으로만 전승되어 그의 작품을 유토피아 사상의 고전적 범주에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에우헤메로스는 유토피아의 특징만을 드러내고, 그 형식이 국가 유토피아적 소설이 요구하는 내용을 채우지 못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유토피아 사상이 담긴 소설 작성의 선구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행정체계의 이상화를 보여준 최초의 유토피아 소설 작가로서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를 유토피아 개념의 협의적 의미가 아닌 광의적

45) C. Colpe, Utopie und Atheismus in der Euhemeros-Tradition, in: Manfred Wacht (Hrsg.): Panchaia. Festschrift für Klaus Thraede, Aschendorff, Münster 1995 (= Jahrbuch für Antike und Christentum, Ergänzungsband 22), p. 39.

46) R. von Pöhlmann/F. Oertel, Geschichte der sozialen Frage und des Sozialismus in der alten Welt, II, Berlin 41951, p. 293.

47) 참조 R. Müller, Menschenbild und Humanismus der Antike. Studien zur Geschichte der Literatur und Philosophie, Leipzig 1980 = Frankfurt a. M. 1981, p. 192.

의미에서 이해할 경우<sup>48)</sup>, 우리는 이를 서구 최초의 유토피아적 국가소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48) 참조. H. Braunert, Utopia. Antworten griechischen Denkens auf die Herausforderung durch soziale Verhältnisse, Kiel 1969, p. 14; B. Kytzler, Utopisches Denken und Handeln in der klassischen Antike”, in: R. Villgrader-F. Krey(Hrsg.), Der utopische Roman, Darmstadt 1973, p. 52[M. Winiarczyk, Euhemeros von Messene: Leben, Werk und Nachwirkung, München/Leipzig 2002, 24쪽(각주 43번)에서 재인용]: “유토피아는 광의적 의미에서는 신화적으로 혹은 서술적으로, 협의적 의미에서는 이성적으로 혹은 구성적으로 나타난다.”

## 참고문헌

### (1) 1차 문헌

- Clay, D./Purvis, A., *Four Island Utopias*, Newburyport 1999, 98-106.
- Jacoby, F., *Die Fragmente der griechischen Historiker*, I A[1923], Leiden 1957 (ND Leiden 1995), 300-313.
- Kytzler, B., *Im Reiche des Eros. Sämtliche Liebes- und Abenteuerromane der Antike*, Bd. 2, München 1983, 669 - 674 (Diodoros 5, 41 - 46 번역 수록).
- Winiarczyk, M., *Euhemeri Messenii reliquiae*. Teubner Verlag, Stutgardiae/Lipsiae 1991 (= Bibliotheca Scriptorum Graecorum et Romanorum Teubneriana).

### (2) 2차 문헌

- 임성철, 「이암블로스의 <태양의 섬>에 나타난 유토피아 사상의 철학적 진실성과 그 현대적 의미」, 『철학연구』 제43집, 2011, 117-156.
- \_\_\_\_\_, 「테오폴포스의 <메로피스인의 땅>(meropis ge) 서술 의도에 나타난 유토피아 사상 고찰」, 『서강인문논총』 제30집, 2011, 239-265.
- Baumgarten, R., *Heiliges Wort und Heilige Schrift bei den Griechen*, Tübingen 1998.
- Bichler, R., “Zur historischen Beurteilung der griechischen Staatsutopie”, in: Grazer Beiträge 11, 1984, 179-206.
- Braunert, H., “Die heilige Insel des Euhemeros nach der Diodor-Überlieferung”, in: Rheinisches Museum 108, 1965, 255-268.
- \_\_\_\_\_, “Staatstheorie und Staatsrecht im Hellenismus”, in: Saeculum 19, 1968, 47-66.
- \_\_\_\_\_, *Utopia. Antworten griechischen Denkens auf die Herausforderung durch soziale Verhältnisse*, Kiel 1969.

- Brown, T. S., “Euhemerus and the Historians”, in: Harvard theological Review 39, 1946, 259-274.
- Colpe, C., “Utopie und Atheismus in der Euhemerus-Tradition”, in: Manfred Wacht (Hrsg.): Panchaia. Festschrift für Klaus Thraede, Aschendorff, Münster 1995 (= Jahrbuch für Antike und Christentum, Ergänzungsband 22), 32-44.
- Dochhorn, J., “Zur Entstehungsgeschichte der Religion bei Euhemerus - mit einem Ausblick auf Philo von Byblos”, in: Zeitschrift für Religions- und Geistesgeschichte 4, 2001, 289-301.
- Dörrie, H., “Euhemerus”, in: Der kleine Pauly. Lexikon der Antike, hrsg. von K. Ziegler und W. Southeimer, Bd. 2, München 1967, Sp. 414-415.
- Geus, K., “Utopie und Geographie. Zum Weltbild der Griechen in frühhellenistischer Zeit”, in: Orbis Terrarum. Internationale Zeitschrift für Historische Geographie der Alten Welt 6, 2000, 55-90.
- Gigon, O., *Die antike Kultur und das Christentum*, Güterloh <sup>2</sup>1971.
- Hasebroeck, J., *Staat und Handel im alten Griechenland. Untersuchung zur antiken Wirtschaftsgeschichte*, Tübingen 1928.
- Helm, R., *Der antike Roman*, Göttingen <sup>2</sup>1956.
- Hirzel, R., *Der Dialog. Ein literarhistorischer Versuch*, I, Leipzig 1895(ND Hildesheim 1963)
- Holzberg, N., “Romanhafte Erzählprosa in der griechischen Literatur. Hinweis auf Möglichkeiten der Ergänzungslektüre”, in: Anregung 39, 1993, 243-254; 302-309.
- \_\_\_\_\_, “Novel-like Works of Extended Prose Fiction, II: A. Utopias and Fantastic Travel: Euhemerus, Iambulus”, in: The Novel in the Ancient World(Mnemosyne Suppl. 159), hrsg. v. G. Schmeling, Leiden 1996, 621-628.
- \_\_\_\_\_, “Utopias and Fantastic Travel: Euhemerus, Iambulus”, in: G.

- Schmeling (ed.), *The Novel in the Ancient World*, Leiden 2003, 621-628.
- Jacoby, F., “Euhemeros”, in: RE, 6, 1907, Sp. 952-972.
- Kaerst, J., *Geschichte des Hellenismus*, II, Leipzig-Berlin <sup>2</sup>1926.
- Kytzler, B., “Utopisches Denken und Handeln in der klassischen Antike”, in: R. Villgrader-F. Krey(Hrsg.), *Der utopische Roman*, Darmstadt 1973, 45-68.
- Meissner, B., *Historiker zwischen Polis und Königshof. Studien zur Stellung der Geschichtsschreiber in der griechischen Gesellschaft in spätklassischer und frühhellenistischer Zeit* (Hypomnemata 99), Göttingen 1992.
- Müller, R. J., “Überlegungen zur *Hiera Anagraphe* des Euhemeros von Messene”, in: *Hermes* 121, 1993, 276-300.
- Müller, R., “Zur sozialen Utopie im Hellenismus”, in: J. Herrmann-I. Sellnow(Hrsg.), *Die Rolle der Volksmassen in der Geschichte der vorkapitalistischen Gesellschaftsformationen*, Berlin 1975, 227-286 [= ders., *Menschenbild und Humanismus der Antike. Studien zur Geschichte der Literatur und Philosophie*, Leipzig 1980 = Frankfurt a. M. 1981, 189-201].
- Nestle, W., *Vom Mythos zum Logos*, Stuttgart <sup>2</sup>1942.
- Pöhlmann, R. von/Oertel, F., *Geschichte der sozialen Frage und des Sozialismus in der alten Welt*, I-II, München <sup>3</sup>1925.
- Rohde, E., *Der griechische Roman und seine Vorläufer*, Leipzig <sup>3</sup>1914.
- Rostowzew, M., *Studien zur Geschichte des römischen Kolonates*, Leipzig-Berlin 1910.
- Salin, E., *Platon und die griechische Utopie*, München/Leipzig 1921.
- Schubert, Ch., 書評: M. Winiarczyk, *Euhemeros von Messene. Leben, Werk und Nachwirkung*, München/Leipzig 2002, in: H-Soz-u-Kult, 26.08.2002, <<http://hsozkult.geschichte.hu-berlin.de/rezensionen/AG->

2002-028> [검색일자: 2013년 4월 15일].

- Strasburger, H., *Zum antiken Gesellschaftsideal*, Heidelberg 1976.
- Susemihl, F., *Geschichte der griechischen Literatur in der Alexanderzeit*, I, Leipzig 1891.
- Tarn, W. W., *Alexander the Great and the Unity of Mankind*, London 1933.
- Thraede, K., “Euhemerismus”, in: *Reallexikon für Antike und Christentum* (= RAC) Bd. 6, 1966, Sp. 877-890.
- Vogt, J., “Die Sklaverei im utopischen Denken der Griechen”, in: *Rivista Storica dell’Antichità* 1, 1971, 19-32.
- Winiarczyk, M., *Euhemeros von Messene: Leben, Werk und Nachwirkung*, München/Leipzig 2002 (= Beiträge zur Altertumskunde, 157).
- \_\_\_\_\_, “Gesellschafts- und Wirtschaftsordnung in der *Hiera Anagraphe* des Euhemeros von Messene”, in: *Wiener Studien* 115, 2002, 127-144.
- \_\_\_\_\_, *Die hellenischen Utopien*, Berlin 2011.
- Zumschlinge, M., *Euhemeros: staats-theoretische und staatsutopische Motive*, Diss., Bonn 1976.

## **Aspekte des Utopischen in der *Hiera Anagraphe* des Euhemeros**

Rhim, Sung-Chul (Kyonggi Univ.)

Seit Erwin Rohde begann man die *Hiera Anagraphe* des Euhemeros als einen utopischen Roman, einen utopisch-philosophischen Roman im Rahmen einer Reisebeschreibung, fictitious traveller's tale, ein Genos der Reiseliteratur, eine Reiseerzählung, fantastic travel tales, einen utopischen Reisebericht, einen utopischen Reiseroman, und utopian adventure novels zu etikettieren. In utopischer Darstellung von Euhemeros ist zu beachten, dass sie ein erster Staatsroman, der von einer Aufrechterhaltung der Wirtschafts- und Gesellschaftsordnung des idealen Staates die Rede ist, gewesen war. Bei ihm erhebt sich insbesondere, dass es trotz der Gesellschaftsordnung in der hierarchischen Struktur keine saubere Scheidung von politisch-kultureller und ökonomischer Lebenssphäre gibt. Die *Hiera Anagraphe* ist keine Zeitutopie, sondern eine Raumutopie im sozial-idyllischen Aspekt. Dies bedeutet, dass Euhemeros auf die Insel Panchaia zum Goldenen Zeitalter weder zurückblickt, sie als ein messianisches Reich noch betrachtet. Vielmehr stellt er die im Indischen Ozean liegende Insel im gegenwärtigen Gesichtspunkt dar. Das heisst, seine utopische Vorstellung ist eine *eutopie*, also ein Topos des guten und glücklichen Daseins. Die *Hiera Anagraphe* kann *sensu lato* der erste utopische Staatsroman im Abendland sein.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묘사의 이해 / 임성철

Key words: Euhemeros, Euhemerismus, eutopic, *Hiera anagraphe*, Panchaia, Raumutopie, Staatsroman

임성철 e-mail: sungchul-rhim@hanmail.net

|       |               |
|-------|---------------|
| 투 고 일 | 2013년 04월 16일 |
| 심 사 일 | 2013년 05월 01일 |
| 게재확정  | 2013년 05월 16일 |